

남자고등학생의 남자간호사 이미지

위휘¹⁾ · 박영례²⁾ · 송미승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발달단계 중 후기청소년기에 해당되는 고등학생 시기는 인생의 준비기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생행로를 선택하는 시기이다. 또한 안전체제인 학교에서 학생신분으로 지내다가 성인이 되는 연결시기이며, 진로선택의 때이다(Lee & Jyung, 2009). 학생들의 진로선택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직업선택으로, 이를 위해서는 장차 어떠한 직업인이 될 것인가 하는 직업결정이 잠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Lee, 2008).

학생들의 직업선택을 포함한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국가수준의 진로선택 관련 조사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 청소년 통계' 결과 조사대상 15세에서 19세의 경우 2002년도에는 '직업' 때문에 고민한 비중이 5.2%였으나, 2010년은 10.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1년도 자료에서 13~19세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하는 주요인은 '적성·흥미(39.4%)'가 1순위였으나, '수입(24.5%)'과 '안정성(20.3%)'의 비율도 높았으며, 2007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89.9%가 진로·직업을 자신의 기준에 의해 선택한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은 주로 적성이나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본인이 진로를 선택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의 흥미나 적성만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왜

냐하면 아직까지 학력에 따른 차별대우가 존재하고, 체면을 중시하며,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Lee, 2010).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 졸업 후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우선시 하는 경우가 많아 2011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2.5%로 1995년 51.4%보다 증가하였다(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012).

최근 몇 년간의 대학입시에서 나타난 뚜렷한 현상 중의 하나는 간호·보건계열 학과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 특히 간호학과는 전문직종이며, 취업률이 다른 학과에 비해 높다고 인식되어 지원율이 상승하였으며(Kim, 2012), 2001년 4만 여명이었던 재적학생 수도 2011년 6만 여명으로 증가하였다(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1). 하지만 간호사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가 모성애와 관련된 따뜻한 보살핌으로 인한 여성성이어서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으며(Mun, 2010), 대중적 인식과 문화적 전통적으로 여성성을 가진 직업군에 남성이 참여하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어렵기에(Williams, 1993) 남학생들은 간호학과 선택에서 인지적이고 실제적인 장벽을 경험하게 된다(Roth & Coleman, 2008).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학과 재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2003년 3.2%에서 2011년 13.0%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남자간호사의 증가는 2005년부터 두드러져 2012년 남자간호사는 총 5,183명으로 전체 간호사의 1.8%에 이른다(Chung, 2012). 현대사회의 다양화와 정보화에 의해 직업의 선택이 성별을 뛰어 넘어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에 비해 그 비율은 아직 매우 적은 편이므로, 진로선택과 진로준비가 이

주요어 : 남자고등학생, 남자간호사, 이미지

- 1)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 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yrpark@kunsan.ac.kr)
- 3)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접수일: 2013년 1월 16일 1차 수정일: 2013년 2월 25일 2차 수정일: 2013년 3월 12일 3차 수정일: 2013년 3월 28일 게재확정일: 2013년 4월 4일

루어지는 고등학교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긍정적인 간호이미지를 심어주고, 유능한 남학생들이 간호학계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지란 어떠한 대상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 생각 및 인상의 집합이며,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전문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Im, 1996). 이미지는 짧은 시간에 형성되기보다 어렸을 때부터의 여러 경위를 통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오므로 성인보다는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Heo & Lee, 1999). 이를 위한 선행단계로서 진로선택의 주체인 남자고등학생이 남자간호사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이 간호직을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동기는 타인을 돌봄, 직업안정성, 다양한 경력개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으로 (Meadus & Twomey, 2007) 알려지고 있으나 Boughn (2001)는 간호학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간호학을 선택한 이유가 타인을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일치하였으나 권력과 임파워먼트, 급여나 근무환경 등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선택 동기는 간호사로 일할 때 전문직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남자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과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대중매체 속에서는 독자적인 간호업무 수행보다는 보조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호직을 여성을 대표하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전문직의 필수요건인 사회적 지위, 존경 및 자율성 등의 이미지는 부족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Park, Kwon, & Kim, 2010; Park & Song, 2001; Yeun, Han, & Lee, 2010). 또한, 간호직 인식과 관련된 조사 연구에서는 남자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집단 중 남자고등학생이 간호직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고 (Mun, 2010), 인문계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간호직에 대한 전망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Lee, 1996),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남학생들의 간호직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자고등학생의 남자간호사 이미지를 연구자가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한 주관성 연구를 통해 이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남자간호사의 이미지를 탐색하고, 유형별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남자고등학생의 간호학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고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남자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유형별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남자고등학생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유형화한다.
- 남자고등학생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에 관하여 구조화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고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자고등학생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Q-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표집 방법

● Q 모집단의 구성

본 연구의 Q 모집단은 국내외 통합검색사이트에서 ‘남자간호사’, ‘male nurse’, ‘men in nursing’, ‘men as nurses’ 등의 단어를 검색하여 남자간호사에 대한 문헌 및 선행연구를 참고한 자료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간호대학생, 간호사, 의사, 직장인, 주부, 노인 등 성별 구별 없이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개인에게 ‘남자간호사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사용한 개별적 심층면담을 직접면담과 전화면담 방법을 통해 시행하여 진술문 자료가 포화되는 시점까지 남자간호사 이미지 관련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대상은 총 20명이었다. 개별적 심층 면담자료는 2009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수집되었으며, 면담결과와 문헌고찰을 통해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된 총 58개의 문항으로 Q 모집단을 완성하였다.

● Q 표본의 구성

남자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Q 모집단에서 Q 표본을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공통된 의미는 통합하고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은 삭제하였으며,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끼리 배열하여 범주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간호학 교수 3인의 검토와 수정과정을 통해 최종 31문항의 자아 지시적 진술문 형태의 Q 표본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진술문을 각각의 카드로 작성한 다음 남자고등학생 3명에게 예비연구를 실시하여 Q 진술문에 대한 이해도와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Table 1).

● P 표본의 선정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주관성 연구에서 P 표본의 크기는 비교적 작은 수의 표본으로도 충분하며, 연구주제 관련 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해야 하므로(Kim, 2008), 본 연구의 P 표본은 임의 선정된 J도 H군에 소재한 일개 인문계 고등학교와 G시의 일개 기술영재 고등학교, G광역시 소재의 일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고등학생 총 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 까지였다.

● Q표본의 분류

연구대상자에게 31개의 진술문을 읽게 한 후, 진술문에 대한 의문이나 이해되지 않는 문항여부를 확인하였다. Q 진술문을 자신의 의견에 따라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중립적인 진술문, 가장 비동의하는 진술문으로 분류하도록 한 뒤 가장 동

의하는 진술문(+4)에서부터 차례대로 선택하여 중립부분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4)에서부터 중립부분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9점 척도 상에 정규 강제분포 되도록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Q 분류를 마친 후, 인구학적 특성 및 간호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항과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개별면담을 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처리는 Q 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항 번호를 확인하여 가장 비동의 문항(-4)을 1점으로 하여 2점(-3), 3점(-2), 4점(-1), 5점(0), 6점(+1), 7점(+2), 8점(+3), 9점(+4)으로 점수화하여 코딩한 후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자료분석은 PC QUNAL

Table 1. Q-Statements and Z-scores

No	Q-Statement	Z-score		
		Type I	Type II	Type III
1	Only feminine men would choose nursing as a job.	-2.04	-1.32	-1.88
2	Male nurses would gradually lose masculinity practicing nursing service.	-1.88	-1.19	-1.88
3	The concept of 'women's job' makes it hard for males to choose nursing as a job.	0.08	2.02	0.64
4	Male nurses have disadvantages working in woman-dominant field of work.	-0.77	0.45	1.34
5	Male nurses have limitations in their job because of their gender.	-1.00	1.04	1.19
6	People feel uncomfortable getting care from male nurses.	-0.28	1.73	1.38
7	Male nurses have a lot of conflicts with the doctors.	-0.55	0.57	-1.29
8	There's no future for a man choosing a job as a nurse.	-1.35	0.35	-1.24
9	Male nurses seem too crude and indelicate to execute nursing service.	-1.14	-0.85	-1.00
10	Males nurses would have trouble getting married because of job discrimination.	-1.08	0.64	-0.93
11	To ordinary people, male nurses are strange and unfamiliar.	0.92	1.70	1.78
12	Male nurses are blunt and unfriendly.	-1.62	-0.22	-0.54
13	A male nurse is thought to be a unstable and temporary job.	-0.29	0.78	-0.54
14	It is easier for a male nurse to get a job than a female nurse.	1.02	-0.81	0.47
15	Male nurses would get promotions early.	-0.27	-1.52	-0.66
16	Male nurses would get higher wages than other occupations.	-0.07	-1.24	-0.55
17	Social position of a male nurse is pretty good.	-0.14	-1.28	-0.53
18	Nursing is a specialized job so it is suitable for a man.	-0.01	-0.69	0.20
19	Male nursing is a blue ocean so it has a bright future.	1.36	-0.59	0.30
20	Patients trust male nurses because they are reliable.	0.78	-0.95	0.65
21	Male nurses seem to be responsible and confident.	1.04	0.11	0.65
22	Male nurse is a respectful and honorable job.	0.41	-0.68	0.10
23	Male nurses would practice quality nursing using their male characters of strength, dynamics, driving force and leadership.	1.38	-0.06	0.91
24	Male nurses would practice quality nursing because they have clear occupational view.	0.45	-0.35	0.85
25	Male nurses are good at computers and handling complicated machines.	0.39	1.44	0.98
26	Male nurses would make a happy and efficient environment for work.	1.04	-0.44	0.49
27	Male nurses will play a important role in elevating the social position of nurses.	0.85	0.55	0.26
28	Impression of a male nurse is not that different from a female nurse.	-0.54	-1.24	-0.51
29	Male nurses would work mainly in specialized departments like ER, ICU, OR.	1.48	0.94	-0.22
30	Male nurses try hard to have their area acknowledged as an independent area among medical system.	0.46	0.18	0.89
31	Male nurses mainly do jobs which requires strength.	1.36	0.92	-1.38

Program을 이용하여 주요인분석법(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아이겐 값(Eigen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이상적인 요인 수를 산출하고,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표준점수(Z-score)를 사용하였다.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전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대상에 한하여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청소년 인 점을 감안하여 설명을 원하는 학부모에게는 전화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더불어 익명성 보장, 자발적으로 참여의 중단이 가능함과 설문 및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연구대상자에게 약속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남자고등학생들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그 특성에 따라 ‘진취적 관점 전환을 통한 남성유망직군’, ‘전통적 여성 중심 직군 속의 남성’, ‘성(gender)과 무관한 전문직으로서의 비전 추구’로 명명하였다.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와 변량을 분석한 결과, 3가지 유형은 전체 변량의 54.8%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변량은 제 1유형이 40.3%, 제 2유형이 9.4%, 제 3유형이 5.1%였다(Table 2).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유사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상관관계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1유형과 제 2유형의 상관계수는 .20이며, 제 1유형과 제 3유형은 .56,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43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Table 2. Eigen Value,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Type 1	Type 2	Type 3
Eigen values	14.10	3.29	1.79
Variance (%)	0.40	0.09	0.05
Cumulative variance	0.40	0.50	0.55

Table 3. Correlation among Types

	Type 1	Type 2	Type 3
Type 1	1		
Type 2	.20	1	
Type 3	.56	.43	1

유형별 특성

● 제 1유형: 진취적 관점 전환을 통한 남성유망직군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전체 35명 중 24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간호사 또는 보건의료직을 희망직업으로 답한 사람은 7명이었다(Table 4). 제 1유형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남자간호사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과 같은 병원의 특수부서에서 주로 일할 것이다(Z=1.48).’, ‘남자간호사들은 자신들의 강함, 역동성, 추진력, 리더십 등의 남성적 특성을 발휘하여 간호직 수행을 잘 할 것이다(Z=1.38).’, ‘남자간호사는 개척이 많이 되지 않은 분야이므로 전망이 밝아 보인다(Z=1.36).’, ‘남자간호사는 힘쓰는 일을 주로 한다(Z=1.36).’, ‘남자간호사는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Z=1.06).’, ‘남자간호사로 인해 조직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일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Z=1.04).’, ‘여자간호사보다 남자간호사가 취업이 잘 된다(Z=1.0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여성스러운 남성만이 간호직을 선택할 것이다(Z=-2.04).’, ‘남자간호사는 간호직을 수행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남성성을 잃을 것이다(Z=-1.88).’, ‘남자간호사는 무뚝뚝하고 친절하지 않다(Z=-1.62).’, ‘간호사는 남자의 직업으로는 비전이 없어 보인다(Z=-1.35).’, ‘남자간호사는 투박하고 섬세하지 못하여 간호업무를 잘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Z=-1.14).’, ‘남자간호사는 직업에 대한 편견 때문에 결혼하기 힘들 것이다(Z=-1.08).’, ‘남자이기 때문에 직업적 역할에 제한이 있다(Z=-1.00).’ 등의 순이었다(Table 5).

제 1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를 나타낸 30번 대상자는 ‘남자간호사는 개척이 많이 되지 않은 분야이므로 전망이 밝아 보인다.’라는 항목에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는데 그 이유를 ‘여자간호사보다 남자간호사가 적고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 라고 하였다. 가장 부정하는 항목은 ‘여성스러운 남성만이 간호직을 선택할 것이다.’로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를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성적 특성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더 관련이 있다.’, ‘단지 간호사라는 직업이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지 여성 남성 특성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인자가중치를 나타낸 24번 대상자는 ‘남자간호사는 힘쓰는 일을 주로 한다.’라는 항목에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그 이유를 ‘간호사의 일 중에는 업무의 특성 상 무거운 짐을 운반하거나 환자이송, 심폐소생술과 같이 힘쓰는 일이 많은데 남자가 여자에 비해 힘이 세기 때문에 남자간호사들은 힘쓰는 일을 많이 할 것 같다.’ 라고 하였다. 가장 부정하는 항목은 ‘남자간호사는 간호직을 수행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남성성을 잃을 것이다.’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를 ‘간호사라는 직업을 여성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자가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s of P-sample

(N=35)

Type	ID	Factor weight	Type of high school	Religion	Future job preference	Perception of academical level	Interaction with a male nurse
1 (n=24)	P2	1.39	Academic	None	Nurse	Fair	None
	P3	.66	Academic	Protestant	Administrative government official	Poor	None
	P6	1.42	Academic	None	Banker	Good	None
	P7	1.49	Academic	Protestant	Architect	Fair	None
	P8	1.10	Academic	Catholic	None	Fair	None
	P9	1.95	Academic	Protestant	Body guard	Good	None
	P10	1.02	Academic	Protestant	Government official	Fair	None
	P11	1.25	Academic	Buddhist	Voice actor	Fair	None
	P13	.82	Academic	None	Job related to cars	Fair	None
	P14	1.76	Academic	Catholic	Doctor	Good	None
	P17	.89	Academic	None	Banker	Fair	None
	P18	.82	Academic	None	Physical therapist	Poor	None
	P21	1.01	Academic	None	Oriental doctor	Fair	None
	P22	1.92	Academic	Protestant	Businessman	Fair	None
	P23	1.20	Academic	Protestant	Dentist	Fair	None
	P24	3.82	Technical	Protestant	Teacher	Fair	None
	P25	1.30	Technical	Protestant	Welder	Good	None
	P28	1.20	Technical	Protestant	Chef	Poor	None
	P29	1.26	Technical	Protestant	Business about new materials	Good	None
	P30	5.55	Academic	None	Researcher	Good	None
	P32	.59	Academic	None	Economist	Good	None
	P33	.87	Academic	None	Physical therapist	Poor	None
	P34	1.00	Academic	None	Computer programmer	Poor	None
	P35	1.54	Academic	None	Nurse	Fair	None
2 (n=5)	P12	.69	Academic	None	Financial business	Fair	None
	P15	.58	Academic	Catholic	Government official	Good	None
	P19	.76	Academic	Buddhist	Engineer	Fair	None
	P20	1.59	Academic	Protestant	Semiconductor business	Fair	None
	P26	.77	Technical	Protestant	Welder	Fair	None
3 (n=6)	P1	1.26	Academic	None	Diplomat	Fair	None
	P4	.96	Academic	Protestant	Businessman	Fair	None
	P5	.79	Academic	Protestant	Architect	Fair	None
	P16	.96	Academic	None	Job related to maritime	Good	None
	P27	1.59	Technical	Protestant	Electronic engineer	Fair	None
	P31	.97	Academic	Protestant	Doctor	Fair	None

간호사 일을 한다고 여성스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 1유형이 인식한 남자간호사는 남성적 특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직종으로 앞으로 간호의 전문직 성장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진취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관성을 지닌 대상자들의 특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 1유형을 '진취적 관점 전환을 통한 남성유망직군'으로 명명하였다.

- 제 2유형: 전통적 여성 중심 직군 속의 남성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전체 35명 중 5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간호사 또는 보건의료직을 희망직업으로 답한 대상자는 없었다(Table 4).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간호직은 여성들의 직업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므로 남자들이 선택하기 부담스럽다(Z=2.02).', '사람들은 남자간호사에게 간호받기를 꺼려워한다(Z=1.73).', '일반인들에게 남자간호사는 낯설고 많이 생소하다(Z=1.70).', '남자간호사는 컴퓨터나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좋다(Z=1.44).', '남자이기 때문에 직업적 역할에 제한이 있다(Z=1.0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남자간호사는 직장에서의 승진이 빠를 것이다(Z=-1.52).', '여성스러운 남성만이 간호직을 선택할 것이다

Table 5. Descending Array of Z-scores(>±1) and Item Descriptions for Each Type

Type	Item	Q-statement	Z-score	
1	29	Male nurses would work mainly in specialized departments like ER, ICU, OR.	1.48	
	23	Male nurses would practice quality nursing using their male characters of strength, dynamics, driving force and leadership.	1.38	
	19	Male nursing is a blue ocean so it has a bright future.	1.36	
	31	Male nurses mainly do a job which requires strength.	1.36	
	21	Male nurses seem to be responsible and confident.	1.06	
	26	Male nurses would make a happy and efficient environment for work.	1.04	
	14	It is easier for a male nurse to get a job than a female nurse.	1.02	
	5	Male nurses have limitations in their job because of their gender.	-1.00	
	10	Males nurses would have trouble getting married because of job discrimination.	-1.08	
	9	Male nurses seem too crude and indelicate to execute nursing service.	-1.14	
	8	There's no future for a man choosing a job as a nurse.	-1.35	
	12	Male nurses are blunt and unfriendly.	-1.62	
	2	Male nurses would gradually lose masculinity practicing nursing service.	-1.88	
	1	Only feminine men would choose nursing as a job.	-2.04	
	2	3	The concept of 'women's job' makes it hard for males to choose nursing as a job.	2.02
6		People feel uncomfortable getting care from male nurses.	1.73	
11		To ordinary people, male nurses are strange and unfamiliar.	1.70	
25		Male nurses are good at computers and handling complicated machines.	1.44	
5		Male nurses have limitations in their job because of their gender.	1.04	
2		Male nurses would gradually lose masculinity practicing nursing service.	-1.19	
28		Impression of a male nurse is not that different from a female nurse.	-1.24	
16		Male nurses would get higher wages than other occupations.	-1.24	
17		Social position of a male nurse is pretty good.	-1.28	
1		Only feminine men would choose nursing as a job.	-1.32	
15		Male nurses would get promotions early.	-1.52	
3		11	To ordinary people, male nurses are strange and unfamiliar.	1.78
		6	People feel uncomfortable getting care from male nurses.	1.38
		4	Male nurses have disadvantages working in woman-dominant field of work.	1.34
		5	Male nurses have limitations in their job because of their gender.	1.19
	19	Male nursing is a blue ocean so it has a bright future.	1.15	
	9	Male nurses seem too crude and indelicate to execute nursing service.	-1.00	
	8	There's no future for a man choosing a job as a nurse.	-1.24	
	7	Male nurses have a lot of conflicts with the doctors.	-1.29	
	31	Male nurses mainly do jobs which requires strength.	-1.38	
	2	Male nurses would gradually lose masculinity practicing nursing service.	-1.88	
	1	Only feminine men would choose nursing as a job.	-1.88	

(Z=-1.32).’, ‘남자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다(Z=-1.28).’, ‘남자의 직업으로서 간호사는 다른 일반적인 직업보다 보수가 좋을 것이다(Z=-1.24).’, ‘여자간호사와 특별히 이미지가 다르지 않다(Z=-1.24).’, ‘남자간호사는 간호직을 수행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남성성을 잃을 것이다(Z=-1.19).’ 등의 순이었다(Table 5).

제 2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를 나타낸 20번 대상자는 ‘간호직은 여성들의 직업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므로 남자들이 선택하기 부담스럽다.’, ‘남자이기 때문에 직업적 역할에 제한이 있다.’라는 항목에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는데 그 이유를 ‘지금까지 여자간호사만을 봐왔기에 막상 간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한다면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선택하기 껄끄러울

것 같다.’, ‘요즘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차별받는 것 같다.’, ‘남자간호사가 여자 환자에게 처치를 하려할 때 거부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라고 답하였다. 가장 부정하는 항목은 ‘여성스러운 남성만이 간호직을 선택할 것이다.’로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를 ‘남자가 간호직을 택하여 오랜 시간을 보낸 결과 남성성을 잃는다는 것은 상식에서 매우 어긋난 관점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인자가중치를 나타낸 26번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남자간호사는 무뚝뚝하고 친절하지 않다.’ 이었으며, 그 이유를 ‘남자간호사는 많이 있지 않고 대부분이 여자간호사여서 남자가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가장 부정하는 항목은 ‘간호직은 전문직이므로 남자들

이 선택하기에 적절하다.’를 선택하였으며, 그 이유를 ‘간호직이 전문직이긴 하지만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다.’, ‘남자간호사라는 직업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낯설고 여성 위주의 일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제 2유형이 인식한 남자간호사는 직업 선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고 간호직 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고수하며 다수의 여성 집단에서 소수의 남성이라는 측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 2유형을 ‘전통적 여성 중심 직군 속의 남성’으로 명명하였다.

● 제 3유형: 성(gender)과 무관한 전문직으로의 비전 추구

제 3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전체 35명 중 6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간호사 또는 보건의료직을 희망직업으로 답한 사람은 1명으로 나타났다(Table 4). 제 3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일반인들에게 남자간호사는 낯설고 많이 생소하다(Z=1.78).’, ‘사람들은 남자간호사에게 간호받기를 꺼려워 한다(Z=1.38).’, ‘간호직은 여성이 대다수인 직업이기 때문에 남자간호사에게는 불이익이 있다(Z=1.34).’, ‘남자이기 때문에 직업적 역할에 제한이 있다(Z=1.19).’, ‘남자간호사는 개척이 많이 되지 않은 분야이므로 전망이 밝아 보인다(Z=1.1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여성스러운 남성만이 간호직을 선택할 것이다(Z=-1.88).’, ‘남자간호사는 간호직을 수행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남성성을 잃을 것이다(Z=-1.88).’, ‘남자간호사는 힘쓰는 일을 주로 한다(Z=-1.38).’, ‘남자간호사들은 의사들과 갈등이 많을 것이다(Z=-1.29).’, ‘간호사는 남자의 직업으로는 비전이 없어 보인다(Z=-1.24).’, ‘남자간호사는 투박하고 섬세하지 못하여 간호업무 잘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Z=-1.00).’ 등의 순이었다(Table 5).

제 3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를 나타낸 27번 대상자는 ‘간호직은 여성이 대다수인 직업이기 때문에 남자간호사에게 불이익이 있다.’, ‘사람들은 남자간호사에게 간호받기를 꺼려워 한다.’라는 항목에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는데 그 이유를 ‘간호사를 구성하고 있는 성비율을 보면 남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자간호사가 점점 많아지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아직까지 간호직에서 남자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비전이 보인다.’라고 하였다. 가장 부정하는 항목은 ‘남자간호사는 힘쓰는 일을 주로 한다’로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를 ‘성별과 관계없이 간호사이면 같은 일을 하고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인자가중치를 나타낸 1번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일반인들

에게 남자간호사는 낯설고 많이 생소하다.’, ‘남자간호사는 의료체계 내에서 독립적 영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이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자간호사가 대부분이고 남자간호사는 거의 없으므로 낯설기는 하지만 의사의 성별은 남녀 모두 상관없는데 간호사는 남자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아직은 여자간호사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꾸준히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한다면 남자간호사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가장 부정하는 항목은 ‘남자간호사는 간호직을 수행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남성성을 잃을 것이다.’를 선택하였으며, 그 이유를 ‘남자간호사가 드물긴 하지만 남성성을 잃기 보다는 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적응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제 3유형은 간호직이 아직까지는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이기에 사회의 편견과 현실이 남자간호사들에게 불리한 면이 있으나 성고정관념을 벗어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으므로 남자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비전을 추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에 제 3유형을 ‘성(gender)과 무관한 전문직으로의 비전 추구’로 명명하였다.

● 남자간호사에 대한 공통된 이미지

남자간호사의 이미지와 관련된 진술문 중 세 가지 유형 간 일치점이 높은 진술문이 있었다. 공통적으로 표준점수 1.00 이상의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없었으나,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여성스러운 남성만이 간호직을 선택할 것이다(Z=-1.74).’, ‘남자간호사는 간호직을 수행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남성성을 잃을 것이다(Z=-1.65).’였다. 각 유형에서 공통되게 부정한 항목을 통해 대상자인 남자고등학생들은 남자들의 간호직 선택이 극단적인 ‘여성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간호직을 수행함으로써 ‘남성성’을 잃지는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다.

논 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진로선택의 주체인 남학생들이 간호학과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진학 후 대학생활의 적응과 졸업 후 평생 직업으로의 선택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사용하여 남자고등학생들의 남자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주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은 ‘진취적 관점 전환을 통한 남성유망직군’으로 남

자간호사는 남성적 특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직종으로 앞으로 간호의 전문직 성장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진취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간호직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성과 같은 타인을 돌보 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과 구별되는 실제적 동기는 ‘직업보장’, ‘임과워먼트’, ‘전문성’ 때문이라고 한 MacDougall (1997)의 주장과 유사하다. 같은 맥락에서 Boughn (2001)도 여자간호대학생들은 환자를 임과워팅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반면 남자간호대학생들은 직업을 임과워팅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급여와 근무환경에 대한 기대로 간호직을 선택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는 전체 간호사 중 에 남자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어 안정적인 취업 이 보장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간호업무의 특성 상 신체적인 강함과 역동성, 추진력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남성들이 더 업 무를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으므로 직업적 역할에 제한이 없어 간호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남자간호사들을 보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정신과 병동과 같은 특수부서 뿐만 아니라 일반 병동 에서도 만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전문인력으로 다 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남자간호사들이 간호조직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Mun (2010)의 연구에서도 남자고등학생이 진로선택 시 간호직을 고려하는 이유에 대해 ‘취업이 용이하다’, ‘안정된 직업이다’, ‘직업의 발전성이 있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간호사에 대해 ‘남자간호사에 대 한 사회적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와 ‘남자간호사는 책임감 이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자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남자 고등학생들의 간호학 진로선택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이미지의 변화는 직업인식에 대한 고령적 틀이 유연해지고 전문성이 확대되어 자신의 적성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2유형은 ‘전통적 여성 중심 직군 속의 남성’으로 직업 선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고 간호직 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고수하며 다수의 여성 집 단에서 소수의 남성이라는 측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간호직을 여성들의 직 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남자간호사라는 직업을 매우 낮설고 생소하게 여기고 있었다. 남자들이기 때문에 컴퓨터나 기계 다루는 능력은 좋겠지만, 직업적 역할에는 제한이 있 으며,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아 남성이 간호직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Lee (1996)와 Mun (2010)의 연구에서 ‘남자간호사는 직업선택을 부적절하 게 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 통하며, 여전히 간호는 ‘여성의 일’로 여기고 있는 경향이 강 하다고 보고한 Burton (2003)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과 거에 남성의 직종으로 인식되어 온 의사직에 여의사가 차지 하는 비율에 비해 남자간호사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남성들이 간호직을 선택하는데 있어 전통적인 성고정관념과 성역할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1세 기에 접어들면서 양성평등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직업선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이미지를 고수하는 것은 진로선택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간호사의 역할 수행과 간호전문직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Son, Koh, Kim, Moon과 Yi (2003), 그 리고 Park (2009)의 주장처럼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성역할 의 차이는 인정하되 여성의 섬세함, 부드러움, 따뜻함 등의 장점과 남성의 역동성과 힘, 대처능력 등의 장점을 상호보완 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형 성하게 될 때 비로소 전문직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 는 의식의 전환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제 3유형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성(gender)과 무관 한 전문직으로의 비전 추구’으로 간호직이 아직까지는 사회의 편견과 현실에 비추어볼 때 남자간호사들에게 불리한 면이 있으나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으므로 남자간호사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간호직은 전통적으 로 여성주류의 직업이기에 아직까지는 남자간호사의 역할이 제한되고 불이익이 있으나 미개척 분야의 직업이므로 남학생 들이 도전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진로와 직업선택 에 있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Williams (1995)는 전통적인 여성의 직업에서 남성들이 항상 불리한 것만은 아니며 채용과 승진, 의사와 동료들과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했다. 간호학과 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한 Park (2009)의 연 구에서도 남성의 희소성으로 인한 직업적 전망을 기대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성취로 연결지어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들 이 많았으며, Cyr (1992)의 연구에 따르면 점차적으로 간호직 을 평생 종사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보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on 등(2003)의 연구에서는 남 자간호사들이 실무적응경험과정에서 사회적, 전문적 장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대처한다면 대학생활과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고 여성 지배적인 간호 영역에서 남자간호사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제 3유형의 대상자들이 간호학 진학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취업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자간호사들을 발굴하여 실제 활약상을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학생들이 평생직장을 선택하는데 있어 호기심이나 단순히 취업이 잘된다는 측면만을 보고 선택하기 보다는 올바른 정보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 2유형은 전통적인 여성 중심의 성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이 강하여 남자간호사에 대해 보수적 태도였다면, 제 3유형은 성고정관념의 영향은 받았으나 편견이나 선입견 보다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인지하여 남자간호사의 비전에 대해 긍정적 측면을 보고자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제 1유형은 남자간호사를 성적 특성에 국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걸맞는 직업적 특성에 맞게 '전문적 진취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진로를 선택한 학생은 적응능력 및 업무능력이 뛰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남자간호사에 대해 바람직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간호대학 뿐만 아니라 남자간호사 역할과 비전에 대한 홍보 등 협회나 학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우수한 학생의 간호직 유입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자고등학생들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전문직에 대한 진취성', '전통적 성고정관념', '비전 추구'의 조합에 의한 주관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즉 남학생들은 간호직을 선택할 때 성적 특성보다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며 남자간호사라는 직업을 전문직으로 인식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좋은 직업이미지는 대학선택과 학과 및 전공 선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Yeun et al., 2010) 진로 선택의 주역인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고찰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남자간호대학생과 남자간호사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주류를 이루고 있는 간호계에서 남학생들의 간호직 선택과 남자간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남자간호사의 이미지를 탐색하고, 유형별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남자고등학생의 실질적인 진로선택과 간호학과 진학 후 적응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남자고등학생들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세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는데 제 1유형은 '진취적 관점 전환을 통한 남성유망직군', 제 2유형은 '전통적 여성 중심 직군 속의 남성', 제 3유형은 '성(gender)과 무관한 전문직으로의 비전 추구'로 나타났다. 남자간호사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남자고등학생들이 막연한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간호학과의 진학을 결정하기보다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고 자신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남자간호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학 후에도 남자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여 최종 직업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자간호사와 관련된 정보공유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의 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직을 선택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자간호사 이미지 유형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P표본이 국내 일부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기술영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고등학생으로 국한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확대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남자고등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남자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한 남자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간호전문직 단체와 간호교육기관의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oughn, S. (2001). Why women and men choose nursing. *Nursing and Health Care Perspective*, 22, 14-19.
- Burton, D. A. (2003). Are you man enough... to be a nurse?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4, 6-7.
- Chung, K. S. (2012). *Age of 5,000 male nurses*. Retrieved May 8, 2012, from <http://www.nursenews.co.kr/Article/ArticleDetailView.asp?typ=3&articleKey=1349>
- Cyr, J. P. (1992). Male in nursing. *Nursing Management*, 23(7), 54-55.
- Heo, G. H., & Lee, B. S. (1999). Nurse's image: Perceived by stud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Taegu,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9(2), 157-173
- Im, M. L. (1996). *Research on contents analysis on image of nursing on television drama*.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H. K. (2008). *Q Methodology: Philosophy, theories,*

-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books.
- Kim, G. Z. (2012). *Nursing department is top attention in college admission*. Retrieved August 2, 2012, from <http://m.unn.net/articleView.html?idxno=112607>
-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1). *University Educational Statistics*. Retrieved January 16, 2012, from the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Web site: <http://cesi.kedi.re.kr/index.jsp>
- Lee, G. N., & Jyung, C. Y. (2009). The development of college major selection program model f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1(1), 87-110.
- Lee, J. H. (1996). *Male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nursing as a career cho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J. H. (2010). *The effects of selective vocational image retained by specialist high school students on their career chan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of Korea, Gyeonggi-do.
- Lee, Y. J. (2008). *The hopeful occupational image and own image agreement characteristic affect in course selection and the course channel of the high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f Korea, Pusan.
- MacDougall, G. (1997). Caring - a masculine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 809-813.
- Meadus, R. J., & Twomey, J. C. (2007). Men in nursing: Making the right choice. *Canadian Nurse*, 103, 13-16.
- Mun, Y. J. (2010).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nursing, male nurses, and nursing as possible career conside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Gyeongsangnamdo.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7). *Adolescent Values Survey*. Retrieved January 16, 2012,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b site: http://kosis.kr/metadata/main.jsp?c_id=2007408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2). *2012 Statistics about Adolescent*. Retrieved January 16, 2012,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b site: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255362
- Park, K. A. & Song, M. R. (2001). Factors that influence nursing image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 584-597.
- Park, S. A., Kwon, H. J., & Kim, H. J. (2010). The portrayal of nurses and physicians in hospital administration journal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6, 33-42.
- Park, Y. R. (2009).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students in colleges of nursing.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6, 449-458.
- Roth, J. E., & Coleman, C. L. (2008). Perceived and real barriers for men entertaining nursing: Implications for gender diversity.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15, 148-152.
- Son, H. M., Koh, M. H., Kim, C. M., Moon, J. H., & Yi, M. S. (2003). The male nurses' experiences of adaptation in clinic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 17-25.
-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012). *Korean social trends 2011*. Retrieved January 18, 2012, from the Statistics Korea Web site: <http://kosis.kr/ups3/upload/101/JK/KST11/EBook.htm>
- Williams, C. L. (1995). Hidden advantage for men in nursing.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19(2), 63-70.
- Williams, C. L. (ed.) (1993). *Doing "Woman's work". Men in nontraditional occupations*. London: Sage Publication.
- Yeun, E. J., Han, S. Y., & Lee, I. J. (2010). Subjectivity on nursing images among high school students: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21, 179-194.

High School Boys' Images of Men as Nurses

Wee, Hwee¹⁾ · Park, Youngrye²⁾ · Song, Mi Seung³⁾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3)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ha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mages of men as nurses held by high school boys, and to provide basic data about the desirability of nursing as a career choice for them. **Method:** Q-methodology which provides a method of analyzing the subjectivity of each item was used: The 35 high school boys classified 31 selected Q-statements into a normal distribution using a 9-point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the pc-QUNAL program. **Results:** Among the high school boys, three types of images of men as nurses were identified. Type I; A promising occupation for men through active way of thinking, Type II; Men working in a woman oriented field of work, Type III; A promising profession without any gender stereotyp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pecific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o promote the choice of nursing among high school boys.

Key words : Men, Nurses, Imag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Youngrye

Department of Nurs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558 Daehangno, Gunsan Jeonbuk 573-701

Tel: 82-63-469-1992 Fax: 82-63-469-1991 E-mail: yrpark@kunsan.ac.kr